

DATA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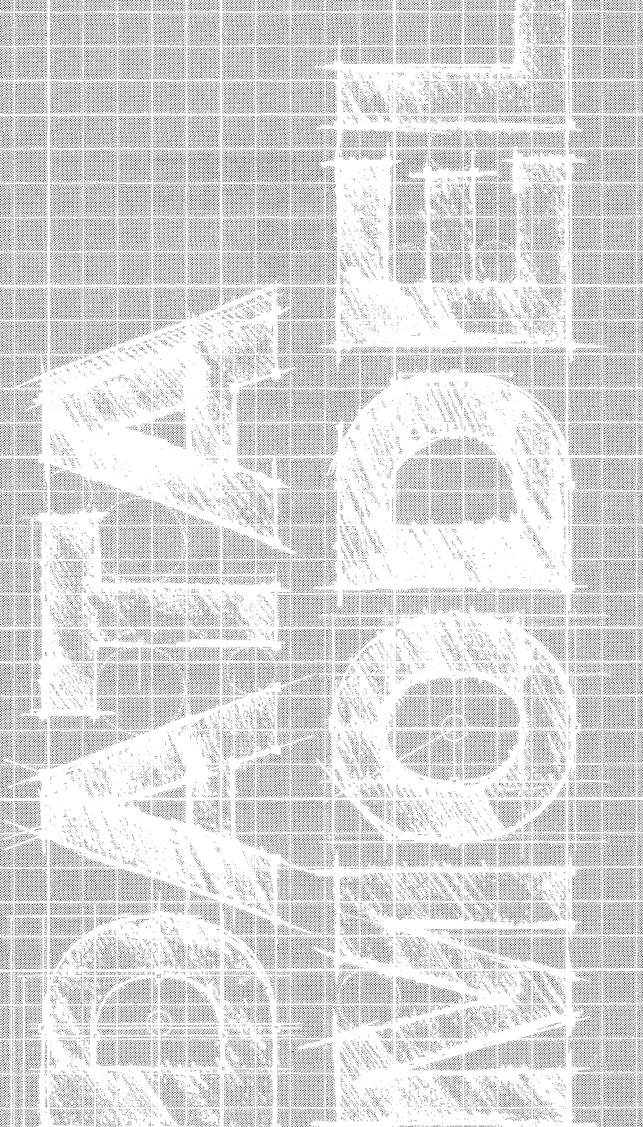
DATA
SERIES

DATA
SERIES

글로벌 스텠드드 데이터 모델

30년 노하우를 표준모델로 정석화 시킨
데이터 모델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화식 지음 |



글로벌 스탠더드 데이터 모델

펴낸날 초판 1쇄 발행 2018년 1월 8일

 초판 2쇄 발행 2018년 10월 18일

발행인 이화식

등록번호 제 22-1435호

등록일자 2017년 12월 11일

펴낸곳 (주)엔코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42 엔코아타워

전화 02 754 7301

팩스 02 754 7305

홈페이지 www.en-core.com

ISBN 978-89-954474-3-7 (93000)

본서의 무단 복제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기술 상담 및 내용 문의는 (주)엔코아로 해주십시오.

Copyright© 2017.이화식. All rights reserved.

플레이데이터(playdata.io) 사이트 내에서
데이터 모델 소스와 사례 모범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著者序文



필자는 지난 삼십여 년간 오직 데이터만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항상 꿈꾸어왔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데이터 모델을 바둑처럼 정석화를 하는 것이었다. 사실 수학이나 바둑을 정석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석화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도의 전략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바둑에서조차 정석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데이터 모델의 정석화 또한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 4천 년의 역사를 가진 바둑에 정석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까? 천 문학적인 양의 기보(棋譜)들만으로 훈련을 해야 했다면 과연 조훈현(9세 입단)이나 이 창호(11세 입단)와 같은 프로기사가 어린 나이에 입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석은 과거에 이룩한 기술의 결정체이자 앞으로의 노력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정석은 가장 짧은 시간에 과거를 효과적으로 계승시켜 주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최상의 수단이다. 또한 정석은 수많은 변화와 응용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복잡한 사고의 세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무수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정석을 기준으로 일정한 변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프로기사들의 수많은 대국들 가운데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수를 다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대부분의 수는 먼저 적절한 정석을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비록 자신이 정석을 창안하지는 못했지만, 만든 사람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는 응용력만 기른다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사실 체계화된 정석만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응용능력을 탁월한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창호나 이세돌이 다른 기사들보다 뛰어난 것이 결코 남보다 더 많은 정석을 암기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판단력을 키우는 일에 어쩌면 평생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암기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러한 면이 바로 바둑이나 데이터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이러한 고민을 할 단계에 도달해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직 데이터 모델의 정석이 없으므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단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형태의 좋고 나쁨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백인백색에 가깝다. 그것은 아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바둑의 정석을 공부하지 않고 동네 친구들과 내기바둑을 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과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바둑을 두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력향상은 가능하겠지만 전문 바둑기사들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만약 이들이 체계적인 정석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과거에 두었던 자신의 대국을 돌이켜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결정을 하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적절한 기준이 없다면 자신의 결정이 어떤 수준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잠시 저장해 두는 창고쯤으로 여겨왔다.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설계했고, 언제라도 바꿀 수 있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전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적절한 기준 역할을 하는 데이터 모델의 정석을 이해하는 것이다.

담박에 고수로 만들어줄 기막힌 비법이 담긴 무공비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협지 주인공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공을 높여줄 기인을 만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열심히 개발에만 매진한다고 해서 때가 되면 저절로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유일한 방법은 먼저 정석의 이해를 통해 기본을 익히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데이터 모델의 정석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단에 적용되었던 모든 기준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석은 매우 표준적이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것이라야 한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깊이 경험해 왔고, 다양한 종류